

# “정부·국회, 이선균 사건 침묵해선 안 돼” “정읍 역사·문화 담긴 유물 찾아요”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 발표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지난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봉준호·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김의성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상진 영화수입배급협회 대표,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대표, 이주연 한국영화마케팅협회 대표,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송장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등 관련 단체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10월 19일 첫 보도 이후 10월 23일 정식 입건 된 뒤 약 2개월 간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 등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개월 간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수사당국을 향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KBS 보도에



배우 김의성(앞줄 왼쪽), 봉준호 감독, 가수 윤종신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고(故)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 그 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공영방송으로서 녹음 파일 보도가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

합하지 않은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살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사 사건 공개금지과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납득 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스

정읍시립박물관, 역사시대~근현대시대 유물·기록물 공개구입

정읍시가 지역의 역사를 담고 있는 유물을 공개구입한다.

시에 따르면 시립박물관은 지역 공립박물관으로서 정체성 확립과 전시·연구 자료 활용, 지역 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매년 정읍과 관련된 유물을 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올해 구입대상은 역사시대부터 근현대시대까지 정읍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모든 유형의 유물과 기록물이다.

구입 대상 유물은 소장 경위가 분명해야 하며, 도굴·도난품 등의 불법유물이나 출처가 소유경위가 불분명한 자료는 매도신청을 할 수 없다.

매매를 원하는 개인 소장자, 단체, 문화재 매

매매자(문화재청 허가) 등은 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과 시립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식을 작성해, 오는 2월 19일부터 2월 21일 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유물은 서류심사와 유물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시립박물관(063-539-679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정읍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시립박물관을 잘 보존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물을 미래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유물 구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문화재청,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체험관 24→60곳 확대

올해 27억원 투입 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 맞춤형 콘텐츠 대폭 보강 운영

문화재청이 올해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 이어지고’를 확대 운영한다.

문화재청은 “올해 27억원을 투입, 수혜 대상 을 기존 24곳에서 60곳으로 확대한다”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시킨 맞춤형 콘텐츠를 대 폭 보강해 운영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어지고’는 도서·벽지 등 디지털 소외지 역에 위치한 학교와 장애인·노인 복지기관 등을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체험이다. 디지털 국가유산 부도와 국가유산 설명 정보를 청 각과 촉각 정보로 변환한 감각 콘텐츠를 활용 해 대표 국가유산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는 듯 한 경험을 제공한다.

디지털 국가유산 부도는 자막, 수어, 음성 등 이 포함된 다감각적 학습도구와 증강현실

(AR), 360도 입체영상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작된다. 박물관에 가지 않아도 상감 청자, 금동대향로 등 국보급 유물에 얽힌 이야 기를 다양한 감각을 통해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들에게는 교육영상, 증강현실 교구재, 학습활동지, 전통놀이 등 다양한 국가유산 교육 콘텐츠를 담은 디지털 교육상자도 제공된 다.

문화재청은 이날 중 공포를 통해 경기도(북 부), 강원도 등 각 지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특수학교, 복지기관 60곳을 선정한다. 선정은 오는 2월 이뤄지며, 세부 일정과 프로그램 협의 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단계적으로 운영된 다.

/뉴스

##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

군산예술의전당, 2월 3일 클래식에 재미·웃음 가득 담아 진행

군산예술의전당은 온가족이 함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오는 2월 3일 16시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유쾌한 오케스트라는 2014년도 창단되어 전문지휘자들과 음악감독의 감독 아래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연주를 추구하는 전문연주자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이다.

지휘를 맡은 김현철은 개그맨 출신으로 교수, 방송인, 영화인 등으로 활동하며 클래식 대중화를 위해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로 60회 이상 전국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공연에는 김현철의 시그니처 곡으로

‘스트라우스 짜라투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시작으로 1부는 ‘서곡의 향연’, 2부는 ‘유쾌한 클래식’을 주제로 한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유쾌한 오케스트라 연주 외에 활발하게 활동 중인 소프라노 홍채린과 세계적인 바리톤 김동섭이 협연한다.

군산예술의전당 홍양숙 관리과장은 “겨울 방학을 맞이하여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이번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를 적극 추천하며, 기존 클래식 공연과 달리 공연을 보며 함께 웃고 박수치고 즐기며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36개월 이상부터 관람 가능하



며 전석 1만 원으로 운영, 티켓링크에서 사전예약을 받는다. /군산=김판곤 기자

2023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생 한경희씨, 신춘문에 당선

‘칸나’,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에 수필 부문

전주시가 지난해 운영한 전주시민독서학교 수강생이 신춘문에 당선돼 작가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

전주시는 2023 전주시민독서학교 ‘1일 글쓰기’반 수강생인 한경희 씨의 수필 ‘칸나’가 ‘2024 전북도민일보 신춘문에’ 공모에서 수필 부문에 당선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수필 ‘칸나’는 작가가 셋째 언니의 삶을 간 나에 비유한 작품으로, ‘형상화와 의미가 잘 된 작품이며 담백한 문체와 적절한 은유, 절제된 감성의 표현, 깊은 사유와 의미 있는 내용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으며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한경희 씨는 “주변과 타인에게 따뜻한 시선

을 보내는 글을 쓰고 싶다”면서 “함께 글을 쓰며 가깝게 솔직한 나눔을 준 문우들과 장마 리 작가께 고마움을 전한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강준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한경희 씨의 신춘문에 당선에 축하한다”면서 “다가오는 3월부터 운영될 2024년 전주시민독서학교도 다양한 분야의 과목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일 글쓰기’반의 강사를 맡고 있는 장마리 작가는 2009년 제62회 문학사상 신인문학 상으로 등단했으며, 2022년 제6회 이호철문학 로문학상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재훈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 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